

명사 수식 성분의 관형성과 부사성

- ‘순(純)’을 중심으로 -

장 고 은 *

I. 서론

1. 연구 목적

본고는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성분의 품사를 가르는 기준을 관형성과 부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음을 ‘순’의 관찰을 통하여 보이고자 한다. 품사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형태와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관형사와 부사는 형태적으로는 굴절하지 않는 불변어이며, 다른 단어나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이다. 관형사와 부사의 구분은 피수식어의 문법 범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와 달리, 부사의 경우는 용언 뿐 아니라 다른 부사나 관형사, 심지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 구분 기준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본고는 황화상(2009)에서 제기한 관형성과 부사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관형사와 부사를 판정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음을 ‘순’의 관찰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기존 사전의 ‘순’ 항목 기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순’은 본래 한자어 ‘순(純)’에서 비롯하였지만 거의 고유어처럼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식민 시대에 오염된 말이나 지나친 한자어의 사용을 거부하며 아름다운 우리말과 우리글을 살려 쓰자는 취지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4학년

‘순 우리말’ 운동이 크게 일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순 우리말’이라는 표현 역시 한자어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은 이처럼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서의 쓰임 이외에도, ‘순수익, 순매출, 순자산’ 등과 같이 ‘전체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외한’이라는 의미를 더하여 경제학 분야의 단어를 파생하는 접두사로서 매우 활발한 쓰임을 보인다. 한편 ‘그는 순 나쁜 녀석이다’에서와 같이 부사로 쓰이는 ‘순’도 있다. 피수식어에 부정적인 어감을 더하는 부사 ‘순’은 주로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그 의미나 쓰임 면에 있어서도 ‘순(純)’이 포함된 부사 ‘순전(純全)히’와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순’이 보이는 관형성과 부사성을 관찰하여 기준 사전의 기술을 보완하고 이 기준의 유효성을 밝히는 예를 보충하려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형태, 기능, 의미라는 기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형태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문장성분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수식 성분들은 그 피수식어의 문법 범주를 기준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피수식어의 문법 범주를 기준으로 품사를 나눌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부사(대체로 정도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크게 세 가지의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첫 번째는 관형사의 체언 수식 기능과 부사의 용언 수식 기능 이외에 부사가 다른 부사나 관형사,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최현배(1937), 김선희(1985), 이익섭·채완(2000), 이규호(2008)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피수식어의 문법 범주를 엄격한 기준으로 삼아, 같은 형태의 단어라 하더라도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논의에는 문순홍(1990), 왕문용·민현식(1993), 이관규(1999), 장영희(2001), 민현식(2002) 등을 들 수 있다. 황화상(2009)은 이러한 두 방안이 품사 분류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형적인 관형사가 가지는 성질인 ‘관형성’과 전형적인 부사의 ‘부사성’을 기준으로 관형사와 부사를

품사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세 번째는 이정택(2003), 조민정(2006), 오민석(2008)과 같이 관형사와 부사를 세분하지 않고 단일 품사인 수식사 혹은 수식언으로 묶는 방안이다.

최현배(1937: 805)에서는 “어찌씨가 임자씨를 꾸미는 일은 없느니라. 그러나 임자씨가 다른 임자씨 우에서 어떤씨의 구실을 할 적에는 어찌씨가 혹 그것을 꾸미는 일이 있나니…”라고 하였고, 이익섭·채완(2000: 130)에서는 “부사는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그 수식대상이 다양하다.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을 비롯하여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제한된 조건에서이지만 명사나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한된 조건이란 주로 ‘수량, 정도, 위치’ 등 ‘정도성’을 가진 체언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규호(2008)에서는 부사의 체언 수식은 생략, 어순 재배치 등에 의한 것이며, 또한 부사는 화자의 양태성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방안의 왕문용·민현식(1993)에서는 체언 수식어들을 전성어로서의 관형사로 보고 정도성, 한정성의 특징에 따라 성상관형사의 하나인 ‘정도관형사’로 설정하였다. 민현식(2002)에서도 ‘체언 수식성’의 관형성과 ‘용언수식성’, ‘부사 수식성’의 부사성을 구분하고,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를 관형사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1)은 왕문용·민현식(1993)에서 제시한 정도관형사의 목록이다.

(1) 정도관형사(왕문용·민현식 1993)

- ㄱ. 오직, 바로, 겨우, 한갓, 고작, 한낱, 아주, 단지, 유독, 천생, 진짜, 똑, 꼭, 참2, 맨1, 맨2
- ㄴ. 무려, 근, 약, 불과, 단, 딱, 한, 다만

이 중 (1ㄱ)은 용언과 체언을 수식할 수 있으며 (1ㄴ)은 체언 수식 기능만 가진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수식언을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으며, (1ㄴ)과 같이 용언을 수식하지 못하는 부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단점은 형태와 의미상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는 단어들

을 두 개의 품사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두 개의 품사로 나누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미의 차이를 강조한다. 장영희(2001)에서도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를 부사의 관형사 용법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부사의 관형사 용법의 가장 큰 근거는 이들이 부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와 의미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 (2) ㄱ.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가거라.
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 (3) ㄱ. **[오직, 단지, 다만, 유독]** 너를 사랑한다.
ㄴ. 너를 **[오직, 단지, 다만, 유독]** 사랑한다.

- (4) ㄱ. **[겨우** 둘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니?
ㄴ. 나는 보고서를 지금에야 **[겨우** 끝냈다.

(2)의 ‘바로’는 부사이지만, (3-4)의 ‘오직, 단지, 다만, 유독’과 (4-7)의 ‘겨우’는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3-7)(4-7)과는 별개로 관형사 용법으로 보았다. 그러나 (3, 4)에서 보이는 정도의 의미 차이는 (2) 역시 보이고 있으며, (3-7)을 ‘너에게 사랑 이외 다른 행위는 없다’의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설령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관형사로 전성된다고 보더라도, 왜 일부의 부사만이 이러한 전성이 가능하며, 그렇게 엄정한 기준으로 관형사와 부사를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기술상의 깔끔함 이외에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세 번째 방안의 이정택(2003)은 피수식어를 기준으로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것은 체언 수식 부사의 존재로 인해 그 타당성을 획득하기 힘들다고 보고, 기존의 관형사로 설정된 것 중 수관형사, 지시관형사, 의문관형사, 성상관형사를 관형사의 일부에서 제외하고 남은 소수의 진정한 ‘관형사’를 부사와 함께 일단 수식사로 묶고 이에 하위분류를 하는 것이어서 기술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하였다. 임유종(1999)의 경우에도 수식어를 어휘범주를 수식하는지 문법 기능소와 호응하는지에 따라 나누고 어휘 범주 수식사를 부사와 관형사로 나눈바 있다. 여기에서는 정도부사의 경우에는 계사문을

수식하는 ‘부사’로 보고 있다. 오민석(2008)에서는 기존의 부사의 특성으로 알려졌던 문장 내 자리바꿈이나 보조사와의 결합 여부가 사실은 개별 단어의 특징임을 밝히고, 기존의 관형사로 분류되었던 단어들이 유의의 부사와 기능상으로도 유사한 모습을 들어 수식언이라는 큰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관형사와 부사는 관형사와 접두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품사 분류임을 알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식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논의의 구성

우선 관형사 ‘순’과 접두사 ‘순’, 부사 ‘순’의 쓰임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들과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¹⁾에서 제공하는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말뭉치’, 글잡이 II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퍼스를 이용하였다. II장에서는 기존 사전이 ‘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코퍼스에서의 쓰임을 통해 ‘순’이 주로 명사를 수식하고 있음을 보이고 품사 분류에 문제를 제기한다. III장에서는 접두사와 관형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한자어에서 유래한 ‘순’의 접두사적 용법과 관형사적 용법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순’을 다시 부사성과 관형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관형사 ‘순’과 부사 ‘순’을 구분한다.

II. ‘순’의 기준 사전의 기술과 명사 수식 양상

1. 접두사 ‘순’과 관형사 ‘순’, 그리고 부사 ‘순’

다음은 기존 사전의 ‘순’ 항목을 발췌한 것이다. (5)는 관형사 혹은 접두사로서의 ‘순’, (6)은 부사 ‘순’의 기술이다.

1) <http://www.sejong.or.kr/>

(5) ㄱ. 『표준국어대사전』

순8(純)[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여 순수하고 온전한. 『순 한국식/순 살코기/순 우리말.

ㄴ. 『우리말 큰사전』

순(純)12 [관] 순전하거나 순수한. 『순 한국식. 순 살코기.

ㄷ. 『연세 한국어 사전』

순3(純) [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화장실 벽에는 대한 독립 만세라는 글자가 순 한글로 적혀있었다.

순4(純) [접두] ‘잡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의 뜻을 나타냄. 『순백색/순이익.

ㄹ. 『금성판 한국어대사전』

순2(純) I. [관] 잡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순 한국식 가옥/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다.

II. [접두] ‘순수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 『순이익/순수입

(6) ㄱ. 『표준국어대사전』

순1[부] ((주로 좋지 않은 성질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몹시’ 또는 ‘아주’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 사람은 순 도둑놈이다./ 이런 순 거짓 말쟁이 같은 놈이 다 있나!/ 네 녀석은 순 몹쓸 놈이구나.

ㄴ. 『우리말 큰사전』

순13 [어(=부사)] 주로 좋지 않은 성질을 나타내는 말 위에서 ‘몹시’ 또는 ‘아주’의 뜻 『순 못된 친구. 순 나쁜 녀석이야.

ㄷ. 『연세 한국어 사전』

부사 ‘순’ 없음.

ㄹ. 『금성판 한국어대사전』

순1 [부] 욕할 때에 ‘아주’의 뜻으로 쓰는 말 『순 몹쓸 놈 같으니라고./넌 순 거짓말쟁이야.

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사전 모두 ‘순’을 관형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관형사 ‘순’이 한자어형태소 ‘순(純)’에서 비롯하였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그 의미는 대체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순수한’을 나타낸다. 『표준』에 따르면 ‘순전하다’와 ‘순수’는 각각 ‘순수하고 완전하다’,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을 뜻하므로, 관형사 ‘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라거나 흠이 없는)’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세』와 〈금성〉은 ‘순’이 접두사로도 가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연세』에서는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다른 품사로 사용되면 별개의 표제 항으로 다루었고, 〈금성〉에서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두 가지 용법을 제시하였다. 의미의 유연성이 크다면 별개의 항목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금성〉과 같이 하나의 표제어로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한편 『표준』과 『우리말』은 『연세』, 〈금성〉과 달리 ‘순’의 접두사로서의 용법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표준』은 이러한 사전적 기술과는 달리, ‘순’이 접두사적으로 쓰인 어휘들을 아래 (7)과 같이 다수 등재하고 있다.

- (7) 순공업도시, 순공의사업, 순국민생산, 순국민소득, 순금속, (순동화량, 순동화율, 순량률), 순매도, 순매반, 순면직물, 순모직물, 순물질, 순백색, 순백자, 순보험료, (순분공차), (순색도), 순생산물, 순생산액, 순소득, 순속반, 순수익, 순수입, 순순환소수, 순용수량, 순우리말, 순유통비, 순음악, 순이론²⁾, 순이윤, 순이익, (순이익금), 순이자, (순이금, 순익률), 순자산, 순재산증가설, 순재생산율, 순적량, 순점프,³⁾ 순문학, 순주정, 순청빛, 순청색, 순청자, 순튼수, 순허수, 순홍빛, 순홍색, 순황빛, 순황색, 순흑빛, 순흑색

이 중 괄호 안에 제시한 것은 ‘순’이 직접성분분석에 의해서는 접두사로 분석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이들도 ‘동화’, 양(量), 분(分), 색(色), 이익 등의 어기에 결합하여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상당한 수의 파생어를 만들어내는 ‘순’의 접두사적 용법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표준』은 ‘순’과 비슷하게 관형사와 접두사의 쓰임을 모두 보이는 ‘총(總)’에 대하여는 두 가지 용법을 모두 기술하고 있다.

- (8) ㄱ. 총6(總) [총:] 「관형사」 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내는 말.

¶ 오늘 출동한 UN군 비행기는 총 3백 대이다.《이병주, 지리산》/

2) 순이론(純理論):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형식만을 문제로 삼는 이론. 수학적으로 풀이한다.
 3) 순점프(純jump): 스키에서, 점프 경기에서 하는 점프를 복합 경기의 하나인 점프와 구별하여 이르는 말

신문은 총 16면이었는데 삼십 호 특집 때문이라고 오만준이 설명했다. 『최인호, 무서운 복수』/공사 진행도 70퍼센트를 목표로 한 제1차 연도의 예산 규모는 총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 ㄴ. 총-9(總)「접사」((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전체를 아우르는’ 또는 ‘전체를 합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 총감독/총결산/총공격.

한편 (6)에서 보듯 『연세』를 제외한 『표준』, 『우리말』, 〈금성〉 사전들은 모두 부사 ‘순’을 표제어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부사 ‘순’을 고유어로 보고 있으며, 부사 ‘순’이 ‘좋지 않은 성질을 나타내는 말 앞’이라는 통사환경에서 ‘아주’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전이 후행하는 명사구에 부정적인 어감을 더하는 ‘순’을 부사로 파악해 온 것은 『조선어사전』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 ‘국어사자료말뭉치’에 따르면 부사적 용법의 ‘순’은 『조선어사전』의 것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이는 ‘순’이 구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문어에서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순’ 항목에 대한 『조선어사전』의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9) ㄱ. 【순】(純) 名 ① 잡물이 섞이지 아니한 것 ② 완전한 것
 ㄴ. 【순】副 「아주」의 사투리

『조선어사전』의 경우에는 예문이 없다. 그런데 『표준』에서 제시한 예문만 살펴보더라도 ‘순 도둑놈’, ‘순 거짓말쟁이 같은 놈’, ‘순 몹쓸 놈’과 같이 ‘순’은 주로 명사 혹은 명사구를 수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순’의 실제 사용 양상을 통해 명사를 수식함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순’의 명사 수식 양상

이 절에서는 ‘순’의 실제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말뭉치’를 이

용하여 ‘순’을 검색한 결과이다. 총 215개의 용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순’은 82개의 예를 보였다. 이 중 일단 단순히 띄어쓰기의 여부로 접두사와 관형사적 용법을 가려보면 접두사로서의 용례가 52개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 (10) ㄱ. 세전순이익, 순매도, 순매수, 순보험료, 순외채, 순유입, 순유출, 순자본, 순자본비율, 순자산, 순자산 보유액, 순자산가치, 순자산액, 순제작비, 순차입비율, 순채무
ㄴ. 순녹차, 순복음, 순소고기, 순식물성, 순우리말, 순한국식
ㄷ. 순저질관객
- (11) ㄱ. 순 한글로, 순 개성사람도 아닌데, 순 우리말로, 순 한문으로
ㄴ. (이거, 예끼) 순, 순 건달, 순 고통의 기억뿐인데, 순 공다지로, 순 나쁜 남자네, 순 나쁜 녀석 아냐, 순 나쁜 사람들이구나, 순 노래이 깡패들, 순 노래이 깡패로, 순 동배짱이야, 순 미친놈 아냐, 순 사기꾼아냐, 순 사기꾼이라요, 순 사기야, 순 쌍 간나들, 순 악질들, 순 엉터리야, 순 엉터리예요, 순 학원에서 나오는 고삐리들밖에 없는데, 순 후레자식 같은 넌

(10)은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0-ㄱ)은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사용된 단어들로, 여기에 대하여 ‘순’이 ‘전체 중에서 기타 덧붙여진 것을 제외한’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 예이다. (10-ㄴ)은 그 외의 분야의 단어들로 ‘순’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여기의 성질로만 이루어진’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관형사적 용법의 ‘순’과 구분이 쉽지 않다. (10-ㄷ)의 ‘순’은 ‘좋지 않은 성질이 심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사 ‘순’의 의미와 같다.

한편 (11) 역시 의미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11-ㄱ)의 ‘순’은 2.1의 사전 기술에 따라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의 의미의 관형사로, (11-ㄴ)의 ‘순’은 주로 부정적인 말 앞에서 부정적인 어감을 강조하는 부사적 용법을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11-ㄱ)과 (11-ㄴ)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부정적인 어감을 더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른 것으로 다분 의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11)에서 보인 예들은 모두 명사 혹은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기 때-

문이다.

(12) ㄱ. 순+NP이다

순 사기꾼이라요, 순 엉터리예요, 순 엉터리야, 순 사막이에요, 순 사기야, 순 뚱배짱이야, 순 도둑놈이다, 순 알도둑이었던, 순 꽁보리밥 이었다, 순 거짓말쟁이 (같은 놈),

순 나쁜 남자네, 순 나쁜 사람들이구나, 순 고통의 기억뿐인데, 순 몹쓸 놈이구나, 순 부처님 가운데토막이야, 순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 야,

ㄴ. 순+NP(이) 아니다

순 사기꾼 아냐, 순 미친놈 아냐, 순 나쁜 녀석 아냐, 순 백정놈 아 닌가

ㄷ. 순+NP(+조사)

순 쌍 간나들, 순 노랭이 깡패들, 순 악질들, 순 후레자식 같은 넌, 순 전달,

순 공다지로, 순 노랭이 깡패로, 순 날건달로, 순 학원에서 나오는 꼬삐리들(밖에 없는데), 순 상놈들(만), 순 억지에 (가까웠다)

ㄹ. 단독 쓰임

(이거, 예끼) 순(2)

(12)는 부사 ‘순’의 출현 환경을 보인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부사와 관형사의 분류 기준인 피수식어의 품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로 체언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서는 이를 주로 부정적인 말 앞에서 ‘아주, 몹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관형사나 부사로서의 쓰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13) ㄱ. 이번엔 술이 아니라 순 배짱으로 나갔던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기에 소개하겠다.

ㄴ. 아마 이런 순 괴동적 대답을 겨우 한마디 나는 했던 듯하다.

ㄷ. 순 경제적 목적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었겠지요.

ㄹ. 에펠탑은 1889년 순 철만으로 건축된 아래 페인트를 16차례나 새로 칠했습니다.

ㅁ. 만일 안 그런다면 도리어 우리가 순 정신적인 면으로 정말 놀라운 발 전을 하기 위해서

- ㅂ. 가 본 척 거짓말할 수도 없고, 또 순 실화만 엮어야 되니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
- ㅅ. 여기가 N국인데요, 순 사막이에요.
- ㅇ. 어머니는 더군다나 서울 근교 태생이 개성으로 시집을 갔을 뿐 순 개성사람도 아닌데, 서울 변두리 빈촌에 살면서 자식들의 정체성만은 확실하게 개성사람으로 …

(13)에서 제시한 예의 품사를 판정하기 애매한 이유는 이들이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순수한’ 혹은 ‘순수히’, ‘순전히’ 등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이 부정적인 어감을 더하는지 여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또한 ‘순’이 관형사적으로 쓰인 예들도 ‘?아주 우리말’, ‘?아주 살코기’, ‘?아주 개성 사람’ 등과 같이 상당 부분 ‘아주’와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어 ‘맨’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표준』에 실린 ‘맨’ 항목이다.

- (14) ㄱ. 맨-「접사」((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 맨눈/맨다리/맨땅/맨발/맨주먹.
- ㄴ. 맨 「관형사」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 ¶ 산의 맨 꼭대기/맨 먼저/그녀는 맨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종세는 맨 가장자리에 있는 카빈총을 집어 들었다.《최인호, 지구인》
- ㄷ. 맨 「부사」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
- ¶ 이 산에는 맨 소나무뿐이다./이곳에는 맨 책뿐이다./그들은 맨 놀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다./아이는 맨 흙투성이로 집에 들어왔다.

『표준』에서는 ‘맨’을 접두사와 관형사, 부사로 다루고 있다.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역할을 하는 접두사는 예외로 하더라도, 관형사와 부사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관형사와 부사와 같이 다른 품사로 분류되는 까닭은 이들이 ‘가장’과 ‘온통’ 등으로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품사 분류 작업은 기술적인 충족성 뿐 아니라 그것으로 설명적 충족성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앞

으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관형성’보다는 ‘부사성’을 더 강하게 떤 부사라는 점을 증명할 것이다.

III. 한자어형태소의 접두사, 관형사로서의 쓰임

이 장에서는 먼저 접두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순’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접두사와 관형사를 나누는 기준을 세우고, ‘순’이 유래한 한자어형태소 ‘순(純)’을 자세히 관찰한다. 그리고 ‘순’의 품사를 판정한다.

1. 접두한자어의 접두사·관형사 판정 기준

접두사⁴⁾와 관형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기능을 한다. 접두사는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형태적 단위이며, 관형사는 피수식어와 함께 명사구를 이루는 통사적 단위이다. 하지만 이 둘은 일견 동일한 위치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접두한자어의 경우에는 한자어 어근과 접두사를 구별하기도 어렵다. 여기에서는 일단 고유어의 접두사와 관형사 판별 기준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접두한자어의 품사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고유어에서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첫째 기준은 자립성이다. 접두사와 관형사는 모두 후행 성분 없이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존도에는 차이가 있다. 관형사는 통사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관형사와 후행 성분 사이에는 휴지를 두거나, 다른 수식 요소가 개입할 수 있지만 (혹은 통사적 구성을 수식할 수 있지만), 접두사는 단어 내부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접두사와 어기 사이에는 휴지를 두거나, 다른 요소가 개입할 수 없는 등 강한 비분리성을 보인다. 즉 관형사와 접두사가 후행 요소(명사)와 갖는 관계는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가령 ‘새문’과 ‘덧문’의 ‘새’와 ‘덧’은 모두 명사 ‘문’ 앞에서 이를 수식하는 기능을

4) 여기에서는 명사 앞에 붙는 접두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한다. 그러나 ‘덧문’에는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으며 ‘새 나무 문’과는 달리 ‘*덧나무문’은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 기준은 분포상의 제약이다. 관형사가 수식하는 후행 명사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접두사는 큰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관형사의 주된 기능이 수식이고, 접두사의 주된 기능이 새로운 단어의 파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식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데에 반해, 파생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따라서 어기의 제약을 보이는 것이다.⁵⁾ 예를 들어 ‘새 문, 새 이, 새 책’은 가능하지만 ‘덧문, 덧니, *덧책’ 등의 ‘덧’은 피수식어가 제약됨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원 뜻과의 유연성이다. 고유어의 경우에는 보통 실질형태 소가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접두사로 굳어지는 예가 많다. 즉 접사화한다는 것은 의미의 추상화가 일어남을 뜻한다. 원 단어와의 의미 유연성이 크다면 그것은 원 단어가 관형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후행 성분을 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는 ‘고무신, 산나물’과 같은 ‘명사+명사’ 복합어, ‘새언니, 첫사랑, 각살림, 이것’과 같은 ‘관형사+명사’ 복합어, ‘여름 향기, 가을 동화, 빵 냄새, 외제 스포츠카’와 같은 명사의 관형사적 용법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개꽃, 개살구’ 등의 ‘개’는 ‘개[犬]’와의 의미 유연성이 매우 낮으며, ‘참 것이 아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파생하는 접두사로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아울러 접두사를 설정할 때에는 생산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접사를 설정하는 것은 공시적인 파생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아서 언중이 접사로 인식하지 못 하는 것이나 어원에 이끌려 과잉 분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관형사와 접두사는 모두 후행 명사 성분을 수식 하며 후행 성분에 의존적이라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관형사는 접두사에 비하여 자립성이 크고 분포상의 제약이 없으며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5) 이러한 특성은 파생 접사의 특징 중 하나로 굴절 접사와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는 특징이 있다. 접두사는 자립성이 없고, 파생어기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원래의 뜻으로부터 추상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접두사를 설정할 때에는 이러한 접두사의 특징뿐 아니라 생산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접두한자어의 경우에는 한자어 어근과 접두사의 구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⁶⁾ 한자어 어근 역시 자립성이 없고, 매우 생산적이면서도 어휘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한자어 어근이 국어 문법 내에서 접두사 혹은 관형사로 기능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본래 한자어 어근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이 한두 가지로 고정되고 생산적인 면모를 보이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접두한자어가 고유어 혹은 외래어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생산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어 문법 단위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노명희(2005)에서 대표적인 한자어 접두사, 관형사, 그 중간적 성격의 단어로 기적인 ‘생(生)’과 ‘양(洋)’, ‘전(前)’과 ‘현(現)’, ‘신(新)’과 ‘폐(廢)’를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관찰한 것이다.

6) 한자어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하여는 김창섭(2001)을 따른다. 김창섭(2001)은 한자어 형성에 고유어 문법이 가하는 제약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논문이다. 여기에서는 한자어의 음절수가 형태론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함을 보여준다.

먼저 한자 1자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어에서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뿐 단어가 되지 못하며, 한자 2자 구성이 비로소 단어가 될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2자어 역시 단어의 내부에만 나타나거나 다른 요소와 분리되기 어려운 등, 자립형식으로서의 단어 자격이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利己+的’, ‘利己+心’의 ‘利己’는 단어 내부에만 나타나며 ‘高貴’는 자립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고 ‘高貴하다’처럼 ‘하다’와 밀접히 결합된 구성으로만 쓰이는 것이다. 한자 3자어란, ‘단어+어근’로 이루어진 구성을 말한다. 고유어 문법은 2자어의 두 자를 의미 내용을 가지는 단위, 즉 형태소로 분석할 뿐, 그 둘 사이의 문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비관여적이다. 그러나 3자어에 대해서는 고유어 문법이 그 구성 요소의 의미는 물론이고 문법적 관계도 분석한다. 따라서 3자어의 구성요소들의 어순이 국어의 오른쪽 향 원리에 맞지 않으면 국어의 단어로 용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2자어 한자어를 분석할 때는 그 구성요소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조차 판정하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자(字)가 3자어의 1자어로 쓰였을 때는 어근과 접사의 신분이 구별된다고 보았다.

(15)

	자립성	분포상의 제약	원뜻과의 유연성	생산성
생(生)	· 생 ⁷⁾ 밥 · 생 알밤	· 생종이, 생고민	· 태어나다, 살아있다. → 익하지 않은, 날것의 → 괜한, 억지스러운	생크림, 생치즈, 생파일주스 ... 생고생, 생쇼 ...
양(洋)	· 양 [#] 과자 · 양 생강 과자	· 양사상, 양종교	· 큰 바다 → 서양의	양초, 양상추, 양배추, 양송이, 양잿물
전(前)	전 [#] (미국) 대통령		· 앞의, 먼저의	
현(現)	현 [#] (경제통상부) 장관		· 지금의, 현재의	
신(新)	· 신 [#] 공법 신 (마케팅) 전략	⁷ 신노트, ⁷ 신컴퓨터	· 새로운 → 개선된, 향 상된, 더 좋아진	신세대, 신소재, 신기술, 신모델 ...
폐(廢)	· 폐 [#] 휴지 폐 (건축) 자제	· 폐노트, 폐프로그램	· 그만두다, 폐지하다 → 못 쓰게 된, 쓸모없 는, 버리는	폐건전지, 폐식용 유, 폐비닐, 폐타 이어...

‘생(生)’과 ‘양(洋)’은 어기와의 사이에 휴지나 다른 수식 요소를 둘 수 없고, 한자어 본래의 의미와 유연성이 적은 추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들은 고유어나 외래어와도 활발히 결합하는 등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분포상의 제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들은 위에서 제시한 접두사의 기준을 만족시키므로 접두사로 판정할 수 있다.

특히 ‘생’의 경우는 안소진(2005)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괜한, 공연한, 억지스러운’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경음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굴을 생으로 먹다, 생은 아니고 살짝 쪐 듯한 명란젓⁸⁾’에서와 같이 명사처럼 쓰이는 용례도 확인된다. 즉 한자어 어근이 접두사로서의 용법을 넘어서서 고유어의 자립 형식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경음화하는 경향이 있다.⁹⁾

7) #는 휴지를 의미한다.

8) 인터넷 검색 <http://blog.naver.com/yjoshjh?Redirect=Log&logNo=110014106172> (2008. 12. 23).

9) 최윤지(2008)에서는 접미한자어 ‘기(氣), 끈(軍), 설(說), 장(長), 증(證)’의 자립 명사화를 관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한자어의 경음화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현상

‘전(前)’과 ‘현(現)’은 어기와의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있고 명사구를 수식하는 통사적 구성을 만든다. 그리고 원 의미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전형적인 관형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新)’과 ‘폐(廢)’는 노명희(2005)에서 ‘어근성보다 관형성이 큰 약 활성어근’으로 분류된 한자어 어근이다. 이러한 분류는 이들 한자어가 보이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중간적 성격을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들 접두한자어가 접두사의 지위를 확보하고, 다시 그것이 관형사의 쓰임을 보이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신’의 경우 어기와의 사이에 휴지를 두면 어색하며, 관형사와는 달리 분포상의 제약을 보인다. 또한 ‘신소재, 신기술, 신상품, 신자유주의’ 등에서 보듯 ‘새로운’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개선된, 향상된, 최신의’ 등의 추상적인 의미를 어기에 더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의 기준에 따르면 ‘신’은 접두사의 성격을 띤다. 한편 ‘신 마케팅 전략, 신 정비 계획’ 등과 같이 명사구를 수식하기도 하여 관형사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접두사 ‘신’이 명사구 단위를 하나의 수식 단위로 파악하여 수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폐’는 비교적 최근에 접두사화한 한자어이다. 어기와의 사이에 휴지를 두면 어색하고 분포상의 제약을 보인다. 또한 본래 ‘폐지, 폐교, 폐광, 폐물, 폐수’ 등에서 ‘폐지하다, 못 쓰게 된’ 등의 의미가 ‘못 쓰게 된, 쓸모없는, 버리는’이라는 의미로 굳어진 후 높은 생산력을 갖는 접사로 기능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폐 건축 자재’와 같이 명사구를 수식하기도 하여 ‘신’과 마찬가지로 관형사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도 ‘신’과 마찬가지로 명사구가 하나의 단위로 파악되어 ‘폐’의 수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순’의 접두사와 관형사로서의 쓰임을 알아보기 이전에, 한자어 ‘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을 ‘역문법화(degrammatical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안소진 (2005)에서와 동일하게 이를 ‘한자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본고도 이와 같은 입장을 따른다.

2. 한자어형태소 ‘순’의 의미와 기능

한자어 ‘순’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순’이 포함된 2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표준』에 실린 ‘순(純)’이 포함된 2자어로, (16)는 ‘순’이 제1음절에 온 경우이고, (17)는 ‘순’이 제2음절에 온 경우이다.

- (16) ㄱ. AB(병렬): ‘A하고 B하다’,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 형성
 순결(純潔), 순고(純固), 순근(純謹), 순미(純美), 순란(純爛), 순례(純麗), 순령(純靈), 순명(純明), 순성(純誠), 순수(純粹), 순숙(純淑), 순실(純實), 순엄(純嚴), 순연(純然), 순열(純烈), 순전(純全), 순정(純正), 순지(純至), 순직(純直), 순진(純眞), 순통(純通), 순호(純乎)
- ㄴ. AB(수식): ‘A하게 B하다/이다’,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 형성
 순일(純一), 순숙(純熟),¹⁰⁾ 순화(純化)
- ㄷ. AB(수식): ‘A한 B’, 명사 형성
 순감(純減), 순금, 순덕(純德), 순도(純度), 순동, 순량(純量), 순리(純理), 순린(純鱗),¹¹⁾ 순림(純林), 순면, 순모, 순미(純味), 순백, 순분(純分),¹²⁾ 순색, 순수(純水), 순신(純臣), 순심(純心), 순의(純益), 순애(純愛), 순액(純液), 순양(純陽), 순유(純儒), 순은, 순음(純陰), 순음(純音)¹³⁾, 순정(純情), 순종(純種), 순증(純增), 순칠, 순청, 순혈, 순홍, 순황, 순효(純孝), 순흑
- (17) ㄱ. AB(병렬): ‘A하고 B하다’,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 형성
 단순(單純), 온순(溫純), 정순(貞純), 청순(淸純), 충순(忠純)
- ㄴ. AB(수식): ‘하다’연결 어근 형성
 불순(不純), 지순(至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은 제1음절에 나타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16)에 나타나는 ‘순’의 한문 문법적 기능은 대체로 (16 ㄱ~ㄷ)과 같이

10) 순숙(純熟): 완전히 익음.

11) 순린(純鱗): 비늘 모양의 무늬가 있는 사(紗)

12) 순분(純分): 금화나 은화 또는 지금(地金)에 들어 있는 순금이나 순은의 합유량

13) 순음(純音): 단순음. 단일 진동수의 소리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6ㄱ)은 후행 한자어형태소와 대등하게 연결되며 ‘순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을 형성하는 예이며, (16ㄴ)은 후행 한자어형태소를 부사적으로 수식하며, 전체적으로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을 형성하는 예이다. (16ㄷ)은 후행 한자어형태소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다’가 결합할 수 없는 명사를 형성하는 ‘순(純)’의 용법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본고가 살펴보고자 하는 ‘순’과 관련된다. ‘순’의 이러한 수식사적 용법 때문에 위와 같이 단어의 제1음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접두사나 관형사로 발전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음절에 나타나는 ‘순’은 모두 (16ㄱㄴ)과 마찬가지로 서술사적 기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하다’가 결합할 수 있는 명사 어근을 형성한다. 선행 요소와의 관계는 대등하게 연결된 경우와(17ㄱ), 선행요소의 피수식어 역할을 하는 경우(17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 한자어형태소 ‘순’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순수한=깨끗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하게’ 등과 같다. 이 중 ‘순’이 수식 성분으로 쓰인 (16 ㄷ)의 어휘들을 의미에 따라 더 자세하게 분류해보자.

- (18) ㄱ. 순덕(純德), 순리(純理), 순미(純味), 순색, 순신(純臣), 순심(純心), 순애(純愛), 순액(純液), 순양(純陽), 순유(純儒), 순음(純陰), 순음(純音),¹⁴⁾ 순정(純情), 순종(純種), 순혈, 순효(純孝); 순도(純度), 순량(純量), 순분(純分)¹⁵⁾
- ㄴ. 순금, 순동, 순림(純林), 순면, 순모, 순백, 순수(純水), 순은, 순철, 순청, 순홍, 순황, 순흑
- ㄷ. 순감(純減), 순익(純益), 순증(純增)

(18ㄱ)의 ‘순’이 ‘순수한, 깨끗한’이라는 의미로 후행 요소를 수식한다면 (18ㄴ, ㄷ)의 ‘순’은 ‘순수한, 깨끗한’의 의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B로만 이루어진’의 뜻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8ㄴ)의 ‘순금, 순동,

14) 순음(純音): 단순음. 단일 진동수의 소리

15) 순분(純分): 금화나 은화 또는 지금(地金)에 들어 있는 순금이나 순은의 함유량

…’ 등은 B가 명사인 예이고, (18ㄷ)의 ‘순감, 순의’ 등은 B가 동사인 예이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순’을 접두사와 관형사로 각기 발전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접두사 ‘순’과 관형사 ‘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순’은 노명희(2005: 95)에서 제시한 표에 따르면 ‘신’, ‘폐’와 마찬가지로 관형성을 띠어가는 어근에 속한다. 자세하게 언급된 ‘신, 폐’와 달리 ‘순’에 대하여는 그 이상의 언급은 없다. 우형식(2006: 210)에 따르면 ‘순’은 최현배, 남기심·고영근, 왕문용·민현식, 서정수 등의 논저나 『표준』, 『우리말』, 『연세』 등 사전에서 모두 관형사로 처리되어 왔다. ‘순’을 관형사로 볼 수 있는지 위의 기준에 비추어 점검해 보자.

먼저 자립성이다. 앞에서 제시하였던 단어들의 ‘순’과 피수식어 사이에 다른 단어나 휴지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19) ㄱ. 순 (우리) 한글로, 순 (우리) 개성사람도 아닌데, 순 (이런) 정신적인 면으로

- ㄴ. 순## 나쁜 녀석이구나, 순## 엉터리야, 순#(최악의)저질관객
- ㄷ. 순# 우리말로, 순# 한문으로, 순#한국식
- ㄹ. 순#녹차, 순#소고기, 순#식물성
- ㅁ. 순#공업도시, 순#면직물, 순#자본비율, 순#자산가치, 순#자산#보유액
- ㅂ. ?순#물질, ?순#허수, ?순#보험료, ?순#복음, ?순#백자, ?순#백색, ?순#매수, ?순#문학, ?순#음악, ?순#이론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ㄱ~ㅁ)은 휴지를 허용하거나 다른 단어의 개입을 허용하며 (19ㅂ)은 휴지를 두기 힘들다. (19ㅁ, ㅂ)의 예들이 접두사로 쓰인 ‘순’을 보여주는데, (19ㅁ)은 전체 단어의 길이가 5음절 이상으로 길 때에는 휴지를 두는 것도 이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휴지라는 운소적 단위 뿐 아니라 음장이나 억양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19ㄱ, ㄷ)의 경우는 ‘순’의 음의 길이가 길며 높고 평탄한 억양을 가지고 (19ㄹ, ㅁ, ㅂ)의 경우에는 ‘순’의 음의 길이가 짧다. (19ㄴ)의 경우

는 음의 길이가 길고 낮았다가 높아지는 억양이다. 이 중 (19ㄱ~ㄷ)의 억양에 대하여는 4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 기준은 분포상의 제약이다. 접두사 ‘순’의 어기는 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형사적으로 쓰이는 ‘순’의 경우에도, 후행 어기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20) ㄱ. 순 우리말, 순 개성사람

ㄴ. *순 말, *순 사람

ㄴ'. 그는 언제나 순 말뿐이었다. 박람회장에는 순 사람밖에 없었다(인간과 우주인이 공존하는 미래에서).

ㄷ. ?순 외국말, ??순 잡종

ㄷ'. 메뉴판이 순 외국말로 되어 있었다.

(20)에서 보듯이 (19ㄱ)의 억양을 가지는 ‘순’의 피수식어는 ‘말, 사람’ 등과 같이 보통 명사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말, 개성사람’과 같이 특정한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그 속성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함을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20ㄴ')의 경우는 전혀 분포상의 제약 없이 후행 체언을 수식하며 이 경우 ‘뿐, 밖에’ 등 ‘한정성’을 나타내는 조사들과 호응한다. 이 역시 4장에서 다시 다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접두사 ‘순’보다 관형사 ‘순’을 더 제약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과연 이것을 관형사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하지만 이것은 다른 관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온 나라, 온 세상, 온 마을, 온 도시’의 ‘온’의 경우에도 “온 사랑, *온 철수” 등 모든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정도성의 문제이다.

세 번째 기준은 원 뜻과의 유연성이다. 3.2에서 한자어형태소 ‘순’의 의미를 ‘순수한=깨끗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하게’와 같이 파악하였고, 이것이 접두요소로 쓰였을 경우 ① 순수한, 깨끗한’, ②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B로만 이루어진’, ③ B에서 다른 것을 제외한, 제거한’의 의미를 가진다. 앞의 (7)에서 제시하였던 ‘순’의 파생어도 위 (18)과 같이 분류해보자.

(21) ㄱ. 순문학, 순음악, 순이론

- ㄴ. 순공업도시, 순공의사업, 순금속, 순맥반, 순면직물, 순모직물, 순물질, 순백색, 순백자, 순속반, 순순환소수, 순우리말, 순점프, 순주정, 순청빛, 순청색, 순청자, 순허수, 순홍빛, 순홍색, 순황빛, 순황색, 순흑빛, 순흑색
- ㄷ. 순국민생산, 순국민소득, (순매도), (순보험료), 순생산물, 순생산액, 순소득, 순수익, 순수입, 순용수량, 순유통비, 순이윤, 순이익, 순이자, 순자산, 순재산증가설, 순재생산율, 순적량, 순톤수

(21 ㄱ)의 ‘순’은 ‘순수한’의 의미를, (21 ㄴ)의 ‘순’은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B로만 이루어진’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21 ㄷ)의 ‘순’은 (21 ㄴ)과 유사하지만 ‘B에서 다른 것을 제외한, 제거한’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순소득’이라는 단어는 전체 소득에서 지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을 가리킨다. 즉 ‘순수함’을 ‘제거’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③ 제외한’의 의미를 지닌 ‘순’만을 접두사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의 ‘순’의 용법은 종래의 한자어형태소 ‘순’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영어의 ‘net’의 번역어로서 수입된 것이다. 이러한 접두사 ‘순’은 매우 생산적으로 경제학 분야의 용어를 파생한다. 즉 접두사 ‘순’의 파생어들은 경제학 분야의 용어라는 분포상의 제약도 가진다. 또한 이들은 영어 ‘gross’의 번역어인 ‘총(總)’에 의하여 파생된 단어들과 대를 이루기도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①, ②와 같은 의미로 ‘순’이 쓰인 경우에는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이라는 관행사 본래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접두사로 다루기보다는 관행사 ‘순’의 접두사적 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고유어와 외래어와 결합하고(순우리말, 순점프 등), 생산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행사 ‘순’과 접두사 ‘순’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접두한자어 ‘순’이 가지는 의미인 ‘순수한=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하게’의 의미 중 ‘순수한=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라는 뜻의 ‘순’은 관행사로 발달하였다. 관행사 ‘순’은 ‘순수한, 깨끗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B로만 이루어진’의 의미로 후행 성분을 수식한다. 단 후행 성분은 B라는 특정

속성을 가진 명사(구)이어야 하며 ‘순’과 피수식어 사이에는 다른 요소나 휴지가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형사 ‘순’은 접두사의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이때의 접두사적으로 쓰인 ‘순’은 관형사 ‘순’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의 두 용법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편 영어 ‘net’의 번역어로 접두한자어의 ‘순’을 도입하여 매우 생산적인 접두사적 용법이 나타났다. 접두사 ‘순’은 ‘순수한, B로만 이루어진, B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외한, 제거한’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후행 성분에 더 한다. 접두사 ‘순’은 후행 성분과 분리될 수 없으며 휴지를 두면 어색하다. 단, 후행 성분의 음절수가 긴 경우에는 휴지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두사 ‘순’에 의한 파생어는 경제학 분야의 용어라는 분포상의 제약을 가진다. 접두사 ‘순’은 전체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총’과 대를 이루며 ‘순토수’와 같이 외래어와도 결합하는 등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관형사 ‘순’과 접두사 ‘순’은 그 의미가 유사하고 한국어 화자들에게 거의 같은 단위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표제어로 묶고 하위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순’의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5e)의 <금성>과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9) 순(純) I [순: 1] 「관형사」 ①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 순 우리말 /순 한국식 가옥
 ② (접두사로 쓰여)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 순금/ 순 물질
 II 「접두사」 ((주로 경제학 분야에 쓰여)) ‘전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순수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순이익/ 순자산/ 순재작비

IV. 명사 수식 성분의 관형성과 부사성

1. 관형성과 부사성의 정의

우리는 품사를 분류함에 있어 기술적 충족성 뿐 아니라 설명적 충족성도

만족시켜야 함을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다. 수식 성분을 관형사와 부사로 나누는 것을 통하여 단순히 단어를 분류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과연 그러한 분류가 왜 타당하며,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황화상(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관형사의 특성인 ‘관형성’과 전형적인 부사의 특성인 ‘부사성’을 정의하고 그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황화상(2009)의 관형성과 부사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0) ㄱ. 관형성: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를 수식하여 그 대상이 갖는 속성을 나타내는 성질
- ㄴ. 부사성: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수식하여 그 속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성질

이는 ‘수식’이라는 통사적 기능과 ‘무엇을 수식’이라는 의미적 기능을 아울러 고려한 정의이다. 이렇게 전형적인 관형성과 부사성을 설정함으로써 ‘아주’ 등의 정도 부사의 체언 수식 양상을 일괄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1) ㄱ. 장미꽃이 아주 예쁘다.
- ㄴ. 새가 아주 높이 난다.
- ㄷ. 이 책은 아주 새 책이다.
- ㄹ. 죄 씨는 아주 부자이다.
- ㅁ. 그는 미국으로 아주 갔다.

(21)의 ‘ㄱ, ㄴ, ㄷ, ㄹ’은 대략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ㅁ’은 ‘아예, 완전히’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을 피수식어의 품사에 따라 분류한다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ㄱ, ㄴ’과 ‘ㅁ’을 함께 용언을 수식하는 ‘ㄱ, ㄴ, ㅁ’로 분류해야 하고, 이밖에 관형사를 수식하는 ‘ㄷ’, 체언을 수식하는 ‘ㄹ’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형성과 부사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류한다면 (21 ㄷ, ㄹ)과 같은 경우의 ‘아주’도 ‘ㄱ, ㄴ’과 마찬가지로 피수식어의 ‘상태, 수

량, 위치 속성'을 수식하는 '부사성'을 가진 부사이다. 즉 '새, 부자' 등의 피수식어는 비록 관형사, 명사라는 품사에 속하지만 그 속성에 정도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주'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사성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성을 가지기도 한다. '바로 옆, 겨우 셋, 무려 갑절' 등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아래의 표는 유형론적으로 접근한 Stassen(1997)에서 시간안정성을 바탕으로 술어를 사건(events), 속성(properties), 부류(classes)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동사, 형용사, 명사들을 나누어 본 것이다. 표 아래쪽에는 소위 정도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진한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이 전형적으로 쓰이는 예이다.

(22)

							→시간안정성		
동사	사건		속성		부류				
	행위	진행	상태		속성				
형용사									
명사				속성		지시	수	대상	
(예시)	먹다		지쳤다	예쁘다	부자	이	세	밥	
잘									
꽤									
아주									
너무									
가장									
오직, 단지									
겨우									
무려									
한낱, 한갓									
맨									
순									

'관형성'과 '부사성'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면 '무려, 한낱, 맨, 순' 등은 주로 명사류만을 수식하지만 이것이 수식 대상의 속성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속성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부사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부사'임이 명확

해진다.

2. ‘순’의 부사성

이 절에서는 먼저 부사 ‘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이것과 접두한자어 ‘순’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후, 부사 ‘순’이 보이는 부사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부사 ‘순’의 의미가 앞서 접두한자어 ‘순’의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의 의미에서 ‘유일성’이 강조되어 ‘오직, 그저, 다만, 순전히’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의 ‘유일성’은 기타 다른 것을 배제하고 대상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사 ‘순’은 ‘-뿐, 만, 밖에’ 등 ‘유일성’을 띠는 조사들과 호응하기도 하여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23) ㄱ. 순 고통의 기억뿐인데

- ㄴ. 순 학원에서 나오는 고삐리들밖에 없는데
- ㄷ. 에펠탑은 1889년 순 철만으로 건축된 아래 페인트를 16차례나 새로 칠했습니다.
ㄹ. -어째 반찬이 순 풀나물뿐이 없어?
ㄹ’. =맞아 순 풀이야.
- ㅁ. 순 실화만 엮어야 되니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

이러한 호응은 부정극성을 가진 ‘결코, 전혀, (조금)도’ 등의 부정극어가 반드시 부정소 ‘안, 못’ 등과 공기해야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비하면 ‘유일성’을 가진 ‘순, 오직, 온통, 그저, 다만, 맨, 순전히’ 등은 ‘유일성’을 띠는 조사와 공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강제적이지는 않다.

한편 이러한 부사 ‘순’의 ‘유일성’은 부정적인 어감을 획득해 가는데, 이는 배타성을 강하게 띤 문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지만 점차 ‘순’의 어휘 의미의 하나로 굳어져 간 듯하다. 부사 ‘순’은 ‘순전히’와 유사한 의미를 보이는데, ‘순전히’와 같은 파생 부사의 경우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순하다’와 ‘순전히’ 사이에는 분명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일례로 『표

준』에 싣고 있는 ‘순전히’ 항목의 예문들도 모두 부정적인 어감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표준』에 실린 ‘순전히’ 항목의 예문들인데, 각각의 ‘순전히’를 ‘순’으로 대체해 본 것이다.

- (24) ㄱ. 그가 너를 좋아할 거라는 건 순전히 착각이다.
 → 그가 너를 좋아할 거라는 건 순 (너만의) 착각이다.
 ㄴ. 그가 실패한 것은 순전히 게으르기 때문이다.
 → 그가 실패한 것은 순 게으르기 때문이다.
 ㄷ.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나는 순전히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나는 순 시험을 위해
 (서만) 공부하는 것이다.

모두 큰 어색함 없이 바꾸어 쓸 수 있다. 대상에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관형성의 ‘순’과 달리 이들은 ‘완전히, 온통, 그저’ ‘착각이다, 게으르다, 시험을 위해서’임을 수식하는 부사성을 강하게 떤다. 여기에서 같은 어근을 가진 관형사형과 부사형의 의미의 차이가 의미심장하다. ‘완전한, 순전한’ 등의 형용사형(관형사형)과 ‘완전히(—완전), 순전히(—순?)’ 등의 부사형은, 전자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온전함과 아울러 ‘꽤, 상당히, 아주’ 등의 정도성을 수식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부사 파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다른 언어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영어의 예를 들면, ‘total, complete, full, entire’ 등의 전체를 나타내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 ‘totally, completely, fully entirely’ 등은 수식 대상의 전체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꽤, 상당히, 아주’ 등 정도를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⁶⁾

16) ‘고론’은 15,16세기에 보이는 “순일히, 순전히 … 만”을 의미하는 관형형이었다. (“고론 純한”, 유창돈, 이조어사전) 이 중에서 이러한 부사적 용법의 ‘순’과 유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례를 몇 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太子 | 널오더 고론 銀물애로다 〈月釋 22: 39b〉
 쪘 혼 널웨를 가시면 그 짜히 고론 青蓮花 | 오 쪼 혼 널웨를 가시면 그 짜히
 고론 紅赤蓮花 | 리니 〈月釋 22: 40b〉

- (25) ㄱ. He was totally upset.
 ㄴ. You were completely drunk last night.
 ㄷ. He was fully justified in leaving the matter untouched.
 ㄹ. an entirely different matter

부사 ‘순’의 부사성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발현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음운론적 특징이다. 앞서 3장에서 휴지의 개입 여부나 음장, 억양 등으로 접두사와 관형사, 부사를 나눈 바 있다. 부사 ‘순’에 주목하여 볼 경우 이는 관형사 ‘순’보다 휴지가 길며, 억양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높고 끝이 올라가는 억양을 보인다. 이러한 억양과 휴지의 차이로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는 ‘맨’의 경우와 유사하다. ‘맨’은 (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형사와 부사로서의 용법이 있는데, 부사 ‘맨’은 부사 ‘순’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부정적인 어감을 포함하며 주로 체언을 수식한다. 부사 ‘맨’ 역시 ‘뿐, 밖에, 만’ 등 ‘유일성’을 떠는 조사들과 호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관형사 ‘맨’과 부사 ‘맨’ 모두 피수식어와의 사이에 휴지를 두고, 장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억양은 서로 다르다. 구어에서 관형사 ‘맨’은 높고 평탄한 억양을 가지고, 부사 ‘맨’은 끝이 올라가는 억양을 가진다.

이렇게 품사를 정하는 문제에 앞서 눈여겨볼 점은 한자어형태소 ‘순’이 국어문법 내에서 접두사로, 관형사로, 그리고 부사로 자립 형식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안소진(2005: 62)에서 보인 ‘생(生), 공(空), 청(清)’, ‘왕(王), 장(長)→짱’ 등의 예와 유사하다. 이들은 대표적인 한자어 접사이지만, 앞의 부류는 점차 명사처럼, 뒤의 부류는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위 논의에서는 비자립적요소인 접두한자어들이 자립성을 얻으며 고유어적인 속성을 획득하면서 한자어 접두사가 되고, 나아가 자립 형식화하기도 함을 밝히면서, 이러한 점은 실사(實辭)들이 고유의 어휘성을 잃으면서 접두사로 발달해 가는 고유어의 문법화 과정과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넓급 蔣 모새 고른 紺瑠璃니 〈月釋22:41a〉

이를 衆生이 너교듸 고른 더러운 거시라 너기거든 부텨는 보샤듸 다 모도아 清淨法身佛리라 〈七大2b〉

地獄은 고른 受苦한 는 고디고 〈七大16a〉

따라서 본고는 부사 ‘순’은 접두한자어 ‘순’이 포함된 부사 ‘순전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부사 ‘순’은 부사 ‘순전히’가 ‘유일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어감을 획득한 후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⁷⁾ 그리고 이것이 주로 부정적인 문맥에서만 사용되면서 관형사 ‘순’, 접두한자어 ‘순’과의 연결 고리를 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고의 논의에 따라 부사 ‘순’의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다음과 같다.

- (26) 순 [부사]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명사구를 강조하여)) 아주, 오직, 온통,
순전히 『순 거짓말쟁이이다./ 순 못된 친구/ 공부는 안하고 순 놀기만
한다./ 순 아이들밖에 없었다.
【‘순전히’에서 유래함.】

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관형사와 접두사, 관형사와 부사의 품사 분류의 기준을 한자어에서 비롯한 ‘순’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황화상(2009)에서 제시한 관형성과 부사성이 유효한 기준이 됨을 논하였다. 관형성이란 어떤 대상의 속성이 어떠함을 수식하는 성질이며, 부사성이란 어떤 속성이 어떠함을 수식하는 성질이다. 이에 따라 정도 부사 등 체언 수식의 양상을 보이는 수식 언들을 부사성이라는 기준으로 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한자어형태소 ‘순(純)’은 본래 ‘순수한=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하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접두한자어로서 후행요소를 수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B로만 이루어진’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 발전하였고, 같은 의미의 접두사적 용법도 보인다. 단

17) 이러한 파생은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말에서 많이 보이는 테 ‘완전히—완전’, ‘은근히—은근’, ‘급히—급’ 등의 예가 있다. ‘완전 멋지다, 은근 무섭다, 급 친해 지다’와 같은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다. ‘급’의 경우는 ‘급 만남, 급 사과’와 같이 관형사적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순전히’가 왜 ‘순전’이 아니라 ‘순’으로 나타나는지는 아직 설명할 수 없다.

관형사 ‘순’의 후행 성분은 B라는 특정 속성을 가진 명사(구)이어야 한다. 한편 영어 ‘net’의 번역어로 도입된 ‘순’은 경제학 분야에서 매우 생산적인 접두사로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접두사 ‘순’은 ‘전체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외한, 제거한’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후행 성분에 더한다. 접두사 ‘순’은 후행 성분과의 사이에 다른 단어를 개입하거나 휴지를 둘 수 없다. 단, 후행 성분의 음절수가 긴 경우에는 휴지를 동반하기도 한다. 접두사 ‘순’은 전체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총’과 대를 이루며 ‘순토수’와 같이 외래어와도 결합하는 등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한편 주로 명사(구)를 수식하는 양상을 보이는 부사 ‘순’은 ‘순전히’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유일성’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포함한다. 부사 ‘순’은 ‘아주, 오직, 온통, 순전히’ 등의 정도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부사성을 획득한 ‘완전히, 순전히’ 등이 관형성을 가진 ‘완전한, 순전한’ 등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부사 ‘순’은 관형사와는 달리 높고 끝이 올라가는 억양을 가지며 휴지가 길다. 의미의 독자성을 획득하여 ‘순(純)’과의 의미 연결고리가 끊어져 고유한 별개의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사전의 방식으로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7) 순(純) I [순: 1] 「관형사」 ①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 순 우리말 / 순 한국식 가옥
 ② (접두사로 쓰여)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 순금/ 순물질
 II 「접두사」 ((주로 경제학 분야에 쓰여)) ‘전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순수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순이의/ 순자산/ 순제작비
 순 (부사)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명사구를 강조하여)) 아주, 오직, 온통, 순전히 ¶ 순 거짓말쟁이이다./ 순 못된 친구/ 공부는 안하고 순 놀기만 한다./ 순 아이들밖에 없었다.
 【‘순전히’에서 유래함.】

참고자료

1. 사전

- 김민수 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
유창돈(1984), 『이조어사전』 5판, 연세대학교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연세 한국어 사전 http://kodic.britannica.co.kr/sear_frame.asp?keyword=학교&pumsa=&keykind=searkey
The Dictionary and Thesaurus -Merriam Webster Online
<http://www.merriam-webster.com/>

2. 인터넷 자료

- www.google.co.kr
www.naver.com

3. 코퍼스

- 글잡이II의 샘플 코퍼스
국어사자료말뭉치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의 형태분석말뭉치
<http://www.sejong.or.kr/gopage.php?svc=simplesearch.words>

참고문헌

- 김규철(1980), 「한자어 단어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연구』 41, 한국어연구회.
- _____ (1990), 「한자어」,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_____ (1997), 「한자어의 문법: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29, 국어학회, pp. 261-308.
- 김선희(1985),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분석」, 『한글』 187, 한글학회, pp. 123-140.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연구』, 태학사.
- _____ (1998),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pp. 5-22.
- _____ (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단어와 구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pp. 117-95.
-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95, 국어연구회.
- _____ (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목정수·연재훈(2000),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pp. 89-118.
-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철의(2008),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2판), 태학사.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안소진(2004),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민석(2008), 「일부 ‘수식언’의 품사에 대하여 — ‘맨’, ‘한’, ‘약(約)’, ‘총(總)’을 대상으로 —」, 『언어와 언어학』 41,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우형식(2006), 「관형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남기심 외 12명,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127-226.
- 이규호(2008), 「체언 수식 부사」, 『국어학』 51, 국어학회, pp. 3-28.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 박사 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 _____ (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_____. · 채완(2000), 『국어문법론강의』 재판, 학연사.
- 이정택(2003), 「관형사의 품사 설정 문제」,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pp. 167-86.
- 임유종(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 장영희(2001), 「국어 관형사의 범주와 기능」, 『한국어 의미학』 8, pp. 201-20.
- 조민정(2006), 「부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남기심 외 12명, 커뮤니케이션북스), pp. 227-67.
- 최윤지(2008), 「자립명사로 발달하는 한자어 파생접미사에 대하여」, 『형태론』 10, pp. 319-33.
- 최현배(1937/1980), 『우리말본』 8판, 정음사.
- 횡문환(2002), 「현대국어 관형사의 어휘사적 고찰」, 『한국문화』 29, pp. 1-19.
- 황화상(2009), 「관형사와 부사의 품사 설정에 대하여-이른바 체언 수식 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2, 한국어학회, pp. 317-344.
- Haspelmath, Martin(2002), *Understading Morphology*, London: Arnold.
- Saeed, John I.(2003), *Semantics* 2nd ed., Oxford: Blackwell.
- Stassen(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